

투데이 칼럼

말을 잘하기 위한 단계

스피치는 말을 잘하는데서 시작된다. 표현과 능력의 시대, 이미지시대에 말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이다. 그러나 누구나 갑자기 말을 잘할 수 없고 잘하게 된 과정이란 게 있다. 여기서 말을 잘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본다.

△제1단계 : 계기(마음먹기)
누구나 어느날 갑자기 말을 잘할 수 없고 말을 잘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 있게 잘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이다. 누구나 계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제2단계 : 동기
말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말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계기는 수시로 주어진다. 동기는 내 안에서만 들어지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계기를 통해 동기가 되어야 말을 잘할 수 있다. "애벌레는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나비가 되어 훨훨날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이 마음을 먹고 일어나 행동해야 한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다.
△제3단계 : 목적
단지 바라는 것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은 다르다. 바랄 수 밖에 없는 그 무엇이 목적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써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 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정치인, 연예인, 목회자가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제4단계 : 자존감
계기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까지 분명해져도 막상 말하려면 두가지가 가로막고 있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남보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것이다.

말에서 평정심을 가지려면 필요한 자존감이다. 독일철학자 '악셀호네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평생 투쟁한다." 고 했다. 자존감은 인정과 존재 가치의 확인,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통해 만들어지고 단단해진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내가 관심있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제5단계 : 기회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말에서 욕심을 내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말할 기회를 자주 갖는다. 첫째, 길게 하지 말고 자주 말해야 한다.

둘째, 말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고독하며 연습해야 한다. 혼자 생각하며 말거리를 찾아내고 꼭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말도 운동경기 선수와 같이 연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잘할 수 있다.

△제6단계 : 즐거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말하기가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말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성장의 기쁨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스피치학으로 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말이 자라나는 만큼 나 또한 성장한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도 없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인품인 것이다. 남에게 호감받고 인격자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말이고, 몸말이고, 글말이다.

사설

2023년 '그림과 풍수' 출간

지난해 말인 12월 출간된 류신영·최이락 교수 공저 '그림과 풍수'를 모르고 부자를 꿈꾸지 말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좋은 그림은 예술적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해산 최수식 화백의 그림에서는 경이로운 정도의 운기(運氣)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책은 그림과 풍수를 접목했다. 고풍적 멋진 해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현대문명의 '이성과 감성'의 저 너머 초월적 세계로 안내한다.
해산 최수식 화백은 우리나라 화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5대 박물관에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월마도' △영국 대영박물관 '미녀와 소' △스페인 피카소 박물관 '호랑이' △일본 우에노 박물관과 미국 카네기 홀 '악녀'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미술사학계의 세계적 거목이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기운을 지닌 그림을 통해 소원하는 바

를 성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그림은 부와 행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띠를 그린 그림을 걸어놓음으로써 수호동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책은 그림을 거는 위치도 제시하고 있다. 풍수에 좋은 그림을 구입하더라도, 올바른 위치에 거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 사람은 공간과 그림의 함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 그림의 예술적 평가나 희소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술품 수집과 투자는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류신영 교수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 교수, 해산 한국화연구소 원장, 독도 수호국인연합 대표로 있다. 최이락 교수는 K-풍수지리학자 데이 원장, 고려대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이카데미 교수, '오비이락 전기뉴스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신아문예대학 작가상의 의미

2022 신아문예대학 작가상 수상식이 있었다. 이 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신아문예대학 서정환 이사장을 비롯 소재 호, 정군수, 전일환, 이원희 지도교수, 이준구 작가회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상은 신아문예대학이 주는 상으로, 시창작반, 문예창작반, 수필창작반, 인문학글쓰기반 등으로 조직 되어 100여 명의 문학인들이 창작 연마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강생들의 글 모음집 '신아문예' 14집을 발간했다. 연말이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작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서정환 이사장은 "인문학의 뿌리는 문학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역문화의 토양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문학의 싹이 틔울 수 있도록 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 2015년 신아문예대학을 창립하게 됐다"면서

"평생교육 시대에 기성 문인과 문학 지망생에게 창작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수상에는 김홍곤, 임선희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시인은 필모한 테크니를 구사하여 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이다.
임선희 시인은 상상력이 여는 수상작 반열에 올려놓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김 시인은 부안 출신으로 시 부문과 수필 부문 모두 한울문학으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신아문예작가회, 부안문인협회, 표현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천길 돌비 하나 새기며', '기독교전주선교 100년사 요약해집집'을 펴냈으며, 대한문학상을 받았다. 임 시인은 남원 출신으로, 월천문화회원, 신아문예대학 작가 회원이다. 신아문예대학 작가상이 끊임없이 창작의 발전을 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의회 난입, 구호 외치는 보수소나루 지지자들



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시위대를 '깡신도, 피시스트'라고 부르며 "모든 법령을 동원해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K-47에 조준경 장착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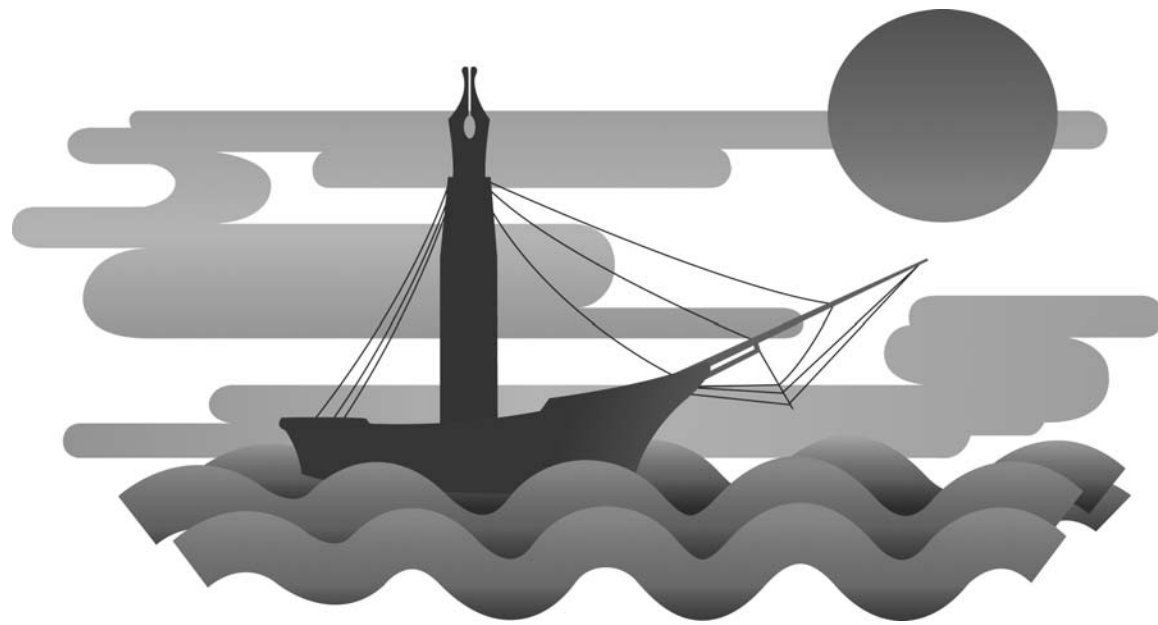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리만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임무 수행 전 AK-47 소총에 조준경을 장착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